

2019년 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보고서

2019년 05월 30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 연 우 의원



광명시의회
Gwangmyeong City Council

- 목 차 -

I. 서론-들어가며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하여

-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동
- 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 i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개편
- iv.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III.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하여

- i. 김구 선생 연표
- ii. 선생의 삶을 통한 시선
- iii. 선생에 대한 견해

IV.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리실태

VI. 결론-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마치며

VII. 참고 문헌

1. 서론-들어가며

올해 1월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서 70.4%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접하고 시민들이 보내주는 준엄한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임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광명시에서 선정된 독립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을 위하여 각고의 투쟁을 외국에서 전개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온전한 역사를 새로운 100년의 미래에 전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의무이고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방 일정은 2박3일과 4박5일로 나누어 진행 되었고 본인은 광명시의회 정례회기에 맞추어 2박3일 상하이(上海), 자싱(嘉興), 항저우(杭州)까지의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따라서 탐방하게 되었다.

상하이는 양자강과 황포강이 만나는 삼각주에 위치한 항구도시이고 국제도시로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난징조약(1842년) 체결 후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계지가 설정되어 동서양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인 동시에 열강들 침탈과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사유재산 인정을 거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현재는 상해인(shanghainese)이라는 프랑스 파리지앵 또는 미국의 뉴요커처럼 스스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여들었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인 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수립되게 되었다.

1932년 4월29일에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홍코우공원(虹口) 의거 때까지 상해는 처음 시작으로부터는 약화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본론에서 임시정부와 김구선생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자싱은 항저우의 임시정부 청사를 일제의 감시와 정보망을 피해 국무위원회를 개최 했던 곳으로 이곳에서 김구 선생은 장진구 혹은 장진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처녀 뱃사공 주아이바오(朱愛寶)와 선상생활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는 양자강과 장강을 삼의 터전으로 나무배 수십 척을 연결하여 선상생활을 일생토록 하는 이들도 있고 광활한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향대운하 연안의 도시였다.

임시정부 요인주거지도 남아 있고 저장성급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건물도 남아 있다.

항저우는 저장성의 성도로 중국의 7대 고도(故都)중 하나며 “천상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항저우와 쑤저우(蘇州)가 있다.” 라고 전해질 정도로 경치가 좋은 도시이다.

녹차의 최고품인 룡징차(龍井茶)의 산지이고 인공으로 조성한 서호(西湖)는 201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항저우는 임시정부 유랑시대의 첫 기착지였고 이곳에 머물던 3년의 시기는 임시정부 최대의 시련기이기도 했다.

국무위원의 사퇴도 있었고 한국대일전선통일연맹의 민족단일당 결성이 구체화 되면서 송병조, 차리석 선생 두 명 만으로 임시정부가 유지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항저우에는 임시정부 청사 사적지 3곳과 한국독립당 사무실 등의 유적지가 남아 있다. 1945년 총칭에서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임시정부는 수도 없이 청사를 옮겨야 하는 지난한

시간들을 건디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의열단을 창설하고 김원봉이 중국 군사 위원회의 지원 하에 조선의용대를 결성 했으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추후 조선의용대는 본대와 화북지대로 나뉘어 일제에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하고자 했으며 조선의용대 본대는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 중국 공산당 팔로군의 영향 하에 호가장 전투를 비롯한 항일무장 투쟁을 벌이며 많은 희생을 치루고 광복이 되어서도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조선의용군은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로 모택동과 김일성의 협 조아래 북한군으로 편입하게 되었고 추 후 남쪽에서는 좌파로 북쪽에서는 연안파로 몰려 속 청당한 비운의 독립군부대가 되고 말았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아직도 좌우로 나뉘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잃 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 주인 되는 길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서 조국의 독립과 완전한 자주국임을 천명했던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의 바탕위에서 우리가 삶 을 영위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아직도 유해가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한분까지라도 발굴하여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의 보훈처 및 관계 기관들의 관심과 남겨진 후손들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대한민국인 모두의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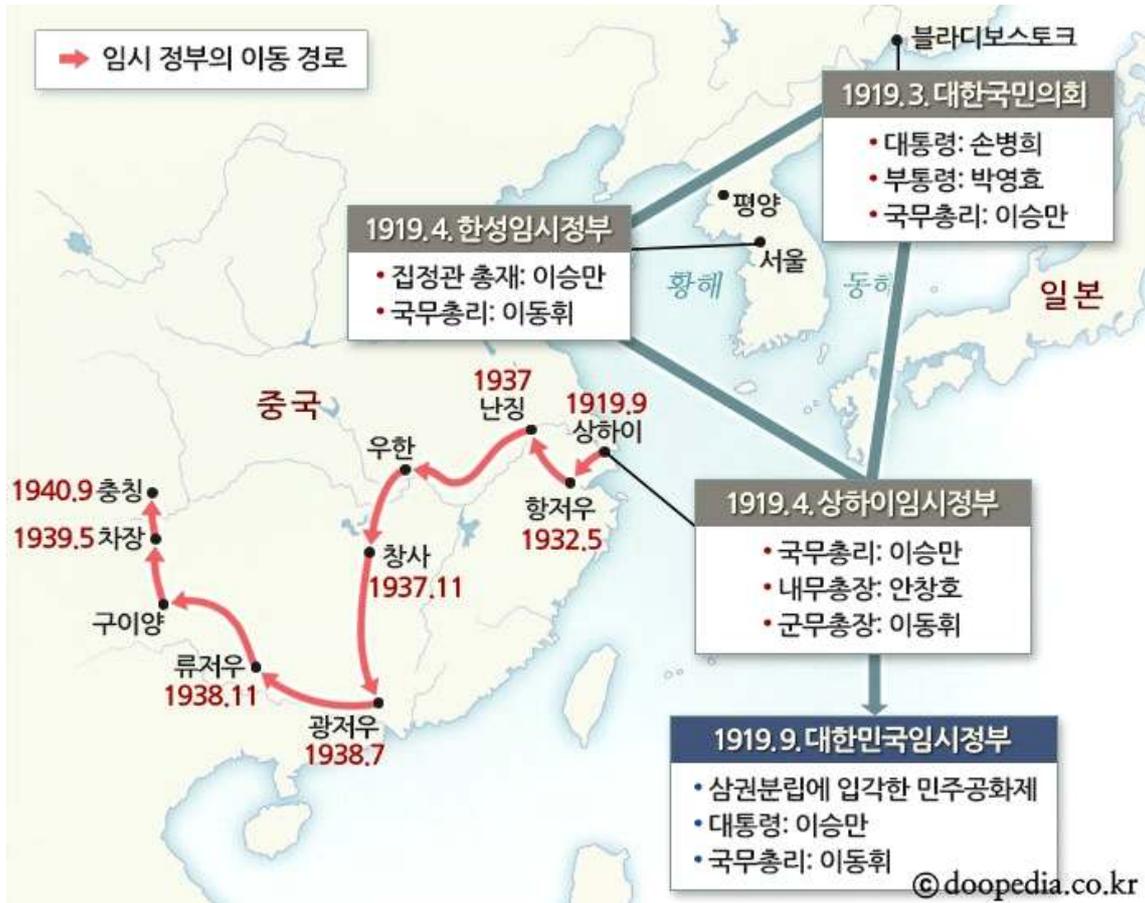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하여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동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鎮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국내외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두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외에 거류민단을 설치하였다. 교통부 내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군에 교통국을, 면에 교통소(交通所)를 신설하였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수집, 정부문서 국내 전달, 인물발굴 및 무기수송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연통제에 따라 서울에 총판을 두고 각 도·군·면에 독판·군감·면감을 두었는데, 국내에는 9개도 1부 45개군에 조직을 두고 만주에는 3개 총판부가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모집, 시위운동 계획, 애국성금 각출운동 등 다양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주로 국내 북서지방에 집중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 중부 이남에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임무를 대행하였다.

재정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과 인두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 [蔣介石]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9월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한편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신대한보(新大韓報)》·《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공보(公報)》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 《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중앙

임시 의정원 (입법부)	국무원 (행정부)	법원 (사법부)
독립운동의 방향과 방법 결의	내무·외무·무·법무 재무·학무·교통·노동	2차 개헌 때 삭제 5차 개헌 때 부활

지방

연통제	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 기관(각 도, 군, 면) 군자금 조달, 정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기관 정보 수집, 분석, 교환

©doopedia.co.kr

i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개편

1차 개헌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지도 체제, 삼권 분립 대통령: 이승만
2차 개헌 (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국무령: 이상용, 양기탁, 김구
3차 개헌 (1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지도 체제 국무위원: 김구, 이동녕 등
4차 개헌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석 중심 강력한 지도 체제 주석: 김구
5차 개헌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석, 부주석제 주석: 김구 / 부주석: 김규식

©doopedia.co.kr

iv.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초기의 외교 활동은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종전기에는 대중외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양(趙素昂)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여론에 알렸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申圭植)을 광둥[廣東]의 쑨원[孫文]이 세운 호법정부(護法政府)에 파견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 [東京義舉] 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III.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하여

호는 백범(白凡)으로 민족주의자며 동학교도로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민족의 큰 시련기였던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시기에 오직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만을 생각하시던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이다.

이번 탐방에서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국무위원, 주석에 이르기까지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6

개월만 상하이에서 머물고 渡美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약해져가는 임시정부와 운명을 같이하고 독립자금의 마련과 독립운동의 다양한 형태의 실천으로 광복의 초석을 놓았으며 생의 마지막까지 완전한 대한민국의 통일 정부를 지향하셨다.

선생의 삶을 돌아보며 후손들의 삶의 궤대로 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i. 김구 선생 연표(1876 ~ 1949)

1876 년 황해도 해주 출생

1893 년 동학 입교

1894 년 동학 혁명 지휘(인내천 사상)

1895 년 김의언 의병단 가입

1895 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살해 후 사형 선고

1910 년 신간회에 참가(1911년-105인 사건으로 채포 17년형 선고)

1919 년 3-1 운동 후 상해 망명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 구축

1929 년 한인애국단 조직(결사단체)

1932 년 이봉창 열사의 일본왕 사쿠라다몬 히로히토 저격 사건 지휘

1932 년 윤봉길 열사의 중국 상하이 홍코우공원 폭탄 투척 사건 지휘

1933 년 한국 무관 학교 설치(중국,난징)

1935 년 한국 국민당 조직

1940 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설치

1944 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선임

1945 년 대한민국 명으로 대일 선전 포고

1948 년 모스크바 3상회의로 발생한 신탁통치 반대 운동

1948 년 유엔 한국위원단 면담 시 남한 단독 선거 반대

1948 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 제안

1949 년 안식처인 경교장에서 안두희에 암살

1962 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상

ii. 선생의 삶을 통한 시선

18세의 김구는 하느님을 모시고 도를 행한다는 동학에 마음이 와 닿게 된다. 매관매직을 일삼는 조선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아버지와 함께 동학에 입도하게 된다. 이처럼 김구는 본인 당장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제국주의에 맞서서 의병이 일어났고 구국의 길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다.

김구는 에버트 청년회의 총무로 애국운동을 지향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사범강습을 마치고 김홍량, 최광옥등과 함께 양산학교를 확장하여 중학부와 소학부를 두게 되었고 신민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안악사건(안명근 사건)으로 결국 해산되게 된다. 안악에 있는 양산학교에서 애국적인 문화운동에 힘쓰고 있던 김구는 체포되어 모진고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어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인천 감옥으로 수감되며 옥살이를 하게 된다.그안에서 김구는 많은 생각과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해 고민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힘든 시기를 겪게 되지만 그시기를 자신의 수양의 길로 승화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1919년 김구는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녕,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등과 함께 임시정부가 조직되게 된다. 김구는 허영을 탐하여 실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정부의 문지기를 청원하였다.

김구는 처음 경무국장을 맡았고 그 후 내무총장으로 집무하였다. 그리고 1927년 11월 국무령으로 피선 되었다. 그 시기 임시정부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김구가 많은 짐을 짊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이 임시정부 초창기 시절 임시정부 안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건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각자의 노선들로 처음 임시정부 인원들이 빠져나갔을 때에도 끝까지 김구는 임시정부를 지키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해방 바로 직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 20년대 임시정부의 암흑기 시절 김구가 홀로 임시정부를 지켰던 것이 나중의 임시정부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기 시절 김구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에 테러를 통하여 활로를 찾으려 하였다. 이봉창, 윤봉길, 황포탄 의거, 육상정 의거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의 일본 천장절에 맞춘 흥커우공원 의거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감정이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 또한 이 의거로 인하여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의 한인 교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성원이 대단하였다. 하지만 이번일로 독립 운동가들은 더욱 심한 감시와 위험이 커졌다. 실행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하였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던 김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4.29의거 이후 유랑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유랑의 끝인 중경에 도착하여 김구는 각 단체의 통일문제를 제기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을 반대하였으나, 사회운동은 독립 완성 후 본국에 가서 하고 지금 해외운동은 온전히 민족적으로 국권의 완전 회복에만 전력하자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김구는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또한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게 되었다. 이 시기 김구는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구는 한국광복군 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국 국민당 장개석과 협의하여 총사령부를 중경에 설치하고, OSS를 통해 비밀훈련을 실시하였다. 광복군은 첫째로 심리학 박사가 각 학생들을 심리학적으로 시험하여 모험성이 풍부한 자는 파괴술을, 지적 능력이 강한 자는 적정정탐을, 눈 밝고 손재주 있는 자는 무전기 사용법을 분과 과목으로 훈련시켰다. 인원은 적으나 그 능력만큼은 매우 뛰어났다.

이처럼 김구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임시정부가 차근차근 준비해온 독립을 위한 광복군의 국내 진입을 실행에 옮겨 보지 못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구는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시안과 푸양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를 휴대시켜 산동 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소에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라며 앞으로 그를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였지만 결국 광복을 가져다 준 것은 연합군의 승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광복이 된 후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여기저기서 시작되었다.

여운형 등은 일제 말 조직한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확보에 노력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중앙 조직을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개편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부를 인민 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익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탈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하의 지주와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인사들은 민족주의 우익 세력인 한국 민주당을 만들었다. 또한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활동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선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 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구를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해방직후 미군정은 김구를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로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번즈 국무장관은 주중대사인 헐리에게 서한을 보내 "비록 개인 자격이기는 하지만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 요원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하도록 교통편을 제공함은 물론, 그들의 귀환이 미군정에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 때문에 취해진 조치임을 그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반탁운동 과정에서 김구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미군정 측에겐 매우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김구는 우익 진영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정도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해방정국에서 임정 측과 미군정의 앞으로의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군정이 수립한 정국구도에서 그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결국 미군정은 김구가, 첫째 남한의 정파들의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 둘째 소련과의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점, 셋째 한국의 민주주의 건설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점, 그리고 넷째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를 줄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으며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이유들을 내세워 김구를 정국운동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던 김구의 소원도 역사의 큰 수레바퀴 앞에 그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김구의 민족사상은 이승만과는 대조적으로 일관성과 순수성에 특징이 있다. 그가 반탁운동에 앞장서 오히려 민족과 국토분열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같은 반탁운동이면서도 김구의 반탁과 이승만·한민당의 반탁은 차원이 달랐다. 김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이 3·1운동 이후 민족영원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반대했으

나, 이승만과 한민당의 반탁은 공산당과의 연정을 반대하자는 것으로 공산당을 배제한 정부를 수립하려면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당초 미국의 위임통치를 진정했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반탁이 김구와 질적으로 크게 달랐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어떠한 김구의 정치투쟁과 민족사상이 찬연히 빛나는 것은 바로 통일운동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또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아닌 김구가 되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어 민족주의자들의 세상이 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이들이 단죄 되어진 세상이었다면 우리 후손들이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갈라진 조국에서 전쟁과 핵의 위험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으며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작금의 현실도 도래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iii. 선생에 대한 견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김구 선생님은 끝없이 닳고 싶은 숭고한 선구자이며 선각자이다. 민족의식이 정립된 청년 이후부터 일생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일제의 침략 하에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다.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야밤에도 몇 차례 죽었다 깨어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항상 반성하셨다. 이처럼 지고지순한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이 백범 선생을 민족의 기둥이고 희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독립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의 문제에까지 정의를 앞세워 행동하였다. 이것은 백범선생이 일찍이 황해도 신천 청계동에서 유학자 고능선 선생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 이를 지켰기 때문이다.

선생은 나라를 위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실천해 내셨고 어려운 조건에서의 광복군 창설로 증명해 내셨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협상과 연합을 통하여 서로 포용하고 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 그렇게 행동하셨다.

임시정부 말기에 좌파 독립운동 단원들과 인물들을 포용하여 일제 패망후의 좌우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일 정부 수립을 준비한 것 등은 선생의 포용성과 인품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또한 좌파 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를 포용하여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해서 광복군을 통일군대로 만들었던 일, 그리고 임시정부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좌파단체를 대표하여 민족혁명당 위원장 김규식을 선임했던 일 등은 지금도 당리당략에 빠지고 분열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돌아보고 가슴에 새겨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다.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김구 선생님의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기초의회 의원으로써 지향점은 무엇이고 가치의 척도는 어디에 두었는지, 궁극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고 선생님께 머리 조아려 올바른 삶의 길을 선문답으로 구해 본다.

IV.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리실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된 국가에서 100년 전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롭게 분연히 떨쳐 일어난 독립운동 애국지사와의 사적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돌아본다.

독립운동의 사적지는 국내와 국외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국가보훈처 및 관계기관에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의 확립이 필요하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립운동의 사적지는 아래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라서 국내 926개와 국외 1,005개로 이들의 관리는 각 보훈단체 및 관계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맡고 있고 사적지의 보존 및 보수가 현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예산도 부족하다. 보훈처 자료에도 관리실태의 자료는 2005년 6월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리라 본다.

현충시설 현황

지정 현충시설 현황

○ 관리주체별

(국가보훈처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계	지자체	군부대	기념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기타
계	2,146	1,058	130	164	127	187	480
독립운동	926	426	3	100	60	177	160
국가수호	1,220	632	127	64	67	10	320

※ 기타 : 마을회, 일반사회단체, 개인 등

○ 시설별

구 분	계	기념관	동상	탑(비석)	사당	생가	조형물	기타
계	2,146	83	161	1,596	52	44	48	162
독립운동	926	60	93	555	42	44	10	122
국가수호	1,220	23	68	1,041	10	-	38	40

※ 기타 : 공원, 장소 등

국외 독립운동유적(중점 112, 일반 627, 기타 266)

합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	멕시코	쿠바	프랑스	기타
1,005	160	464	119	70	19	53	13	12	95

* 기념관 41, 생가 1, 탑·비석 83, 동상 6, 묘역 57, 표지물 15, 건물 235, 장소 567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활용

□ 최근 3년간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현황

○ 관리자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독립운동	국가수호
1,480	654	826

○ 방문자 수(활용실적)

- 우리처가 지원한 주요 기념관 방문자 실적

(2005. 6월 현재)

구 분	소재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백범기념관	서울	9,792	21,311	24,020	31,926
이강년선생 기념관	경북 문경	14,947	11,854	13,156	7,209
백산기념관	부산	34,223	31,555	31,315	13,312
윤봉길기념관	충남 예산	116,000	108,000	94,000	90,537
김좌진기념관	충남 홍성	40,000	50,000	65,400	151,084
유관순기념관	충남 천안	미개관	400,000	480,000	282,784
안성3.1운동기념관	경기 안성	36,430	50,962	52,224	25,000
대전3.1의거기념관	경북 포항	2,000	2,000	2,500	1,500
안창호선생기념관	서울	9,954	8,091	8,805	6,310
단재기념관	충북 청원	5,972	8,322	9,956	9,252
의암유인석선생기념관	강원 춘천	미개관	미개관	9,435	4,124
백정기의사기념관	전북 정읍	미개관	미개관	3,000	2,000

- 활용실적(2003 ~ 2004)

연도별	계	시설활용 (참배, 정화활동)	행사참석 (기념행사 등)
2003	1,831,615	1,603,887	227,728
2004	3,777,986	3,321,614	456,372

- 활용실적(2005년 6월현재)

<기념관 관람>

관람인원			대상별				
계	단체	개인	계	보훈대상자	어린이	청소년	일반
2,318,580	1,479,913	838,667	2,318,580	214,429	510,828	689,334	903,989

<현충탑 등 기타시설 >

구분	인원(계)	유형별		
		일반단체	개인	보훈관련단체
계	1,483,072	681,198	342,833	459,041
단순참배	807,086	296,158	255,221	255,707
행사참석	356,340	188,483	52,141	115,716
정화, 봉사활동	122,779	69,780	8,719	44,280
사적지탐방(현장학습)	191,758	123,980	24,877	42,901
기타	5,109	2,797	1,875	437

※ 공원시설 이용시 단순방문 등

○ 현충시설 관리(개보수)예산

(백만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332	320	500

□ 최근 3년간 국내외 현충시설 활용현황

○ 교육·탐방프로그램운영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금액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참여인원
2002년	87	10,987
2003년	50	10,620
2004년	64	10,370

- 문예활동

금액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참여인원
2002년	50	557,824
2003년	59	562,385
2004년	59	503,418

□ 국내외 현충시설의 관라활용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협조현황

관 련 기 관	업 무 명	협 조 사 항
외 교 부	- 해외사적지실태조사(관리)	- 현지실태확인
멕시코대사관	- 메리다지방회관 개관	- 개관행사 및 활성화 지원
에티오피아대사관	- 참전기념비 건립	- 부지 무상협조, 건립사업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 현충시설 관리, 활용	- 기념행사 추진 협의
한국관광공사	- 체험!가족여행 탐방 행사	- 행사 공동 주관

VI. 결론-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마치며

1992년 8월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한중수교를 맺었다.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교역량은 수십배에 달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며 동반자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한중관계는 불안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곳엔 나라를 잃고 유랑을 하며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와 북간도로 이주해 갔던 우리 조선족 정확히는 중국동포들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한족(92%)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8%)중 197만 명의 우리 동포들은

자생적인 삶을 위하여 동북3성과 연변자치주의 9개 도시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하여 머나먼 중국에서 긴 시간의 고된 투쟁의 길을 걸어가신 독립
 운동가들의 여정을 그분들의 후손과 함께하며 몽글한 순간들이 많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자유를 노래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목숨 바쳐 이뤄낸 그분
 들의 희생과 숭고한 애국의 길을 영원히 추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보람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
 록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정책을 통하여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아오기 전날 밤 시장님의 말씀처럼 광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의 민족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의 정례화도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번 광복회 광명시지회에서 함께 한 어르신들의 모습처럼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은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끝으로 현재 광명시는 3.1만세운동의 발상지(온신초 주재소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발굴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민간이 발굴한 기록조차도 왜곡되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와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발굴 보존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
 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탐방 중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들려 준 사연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신데 연세가 들어서 요양병원을 전전하다가 광명시에서
 먼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광명시에 부탁하여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했으나 현실은
 팍팍하여 그렇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행정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셨다면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그 시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웃음을 머미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독립운동가 분들과
 그 후손들의 삶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Ⅶ.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네이버 지식 두산백과사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회광명시지회

한시준, [연구 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진입 구상 - 해방 직전 해외 무장세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한국 근현대사 학회」

김구, 『백범일지』 - 「돌베개」

김우전,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서 : 마지막 광복군의 이야기』 - 「敎文社」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 「지식산업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VIII. 관련 사진

